

2000년 법정시나리오 작성안

작성자: 조시현 (1999.9.29)

*이 글은 1999.9.27. 2000년 법정 운영위원회 1차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보완한 것입니다.

1. 전체 일정

2000년 법정은 현재 2000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1) 개막과 폐막행사에는 문화행사가 같이 있을 예정이다. 엄정한 법정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은 12월 8일 둘째 날 오전에 하기로 한다.

(2) 판결문작성을 위해 12월 9일 저녁부터 12월 10일 오전까지 휴정한다.

(3) 법정이 열리지 않는 12월 10일 오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논의하여 완성한다.

날짜별 행사일정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시 간 날 짜	12.7	12.8	12.9	12.10
오전		개정-1차 회기	3차 회기	휴정(판결문 작성 계속) 행동계획 공개논의
오후	개최행사	2차 회기	4차 회기	판결문 낭독 행동계획 공표 폐막행사
저녁		(연장 회기)	(판결문 작성)	

2. 공판일정

전체일정에 따르면 실제 재판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다. 공판은 오전, 오후 회기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저녁에 연장회기도 가능한 것이다. 아래의 계획은 각 회기가 별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시간제한은 원칙을 정한 것일 따름이며 재판의 진행상 부득이 한 경우 정해진 회기를 넘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주제	소주제
1차 회기	군위안부 제도의 성립과 강제연행	이성과 평화문제 천황제 식민문제 제2차세계대전
2차 회기	위안소에서의 삶	
3차 회기	폐진과 그 이후: 할머니의 침묵	
4차 회기	군위안부 문제제기 이후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첫날은 과거, 둘째 날은 현재, 셋째 날은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다루게 될 것이다.

3. 시나리오 구성 계획

한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이며 다만 대강의 원칙만을 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1) 검사들이 각 회기의 진행을 담당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판사들이 재량에 따라 진행에 개입할 수 있다.

(2) 각 회기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특성상 각각의 회기를 각기 다른 검사에게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판사들도 이러한 구성을 참작하여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해자의 증인부분은 여러 회기에 걸쳐 적절히 안배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최종시나리오의 확정에는 검사들과 참가단체들의 책임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시나리오의 준비는 우선 입증이 필요한 주요한 사실들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피해자의 증인, 전문가의 증인, 서민·영상자료 등 입증수단을 정할 필요가 있다.